



##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 주일설교

제목: 복음을 위한 고난!

본문: 디모데후서 1:17-18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내용은 개인적 감상, 행정 정책, 회상, 교훈, 슬픔, 확신 등이고, 목적은 어려운 임무를 감당해야 할 디모데(하나님을 공경함)에게 힘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심(디모데후서 1:9절)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나가는 심정으로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디모데후서 2:3절).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5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17-20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신자(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1.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어떻게 말합니까?
2.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사하며 전합니까?

#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온유하며, 애통해 하시던 예수님,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시던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며,  
마음이 청결하시고 화평케 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분은 세상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으  
며,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자처한 사람들을 언제나 안절부절하게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예수  
님 자신은 누구도 비판하신 일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도  
규탄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누구도 심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을 용  
서해 줄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처형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 두는 것은 그들  
이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항상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배척당할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헨리 나우웬

## THINK

### 오늘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나요?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복음에는 항상 칭찬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따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름받은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 내십시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30일
마을특송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김
대표기도	김미란 권사	박윤미 권사	손숙희 권사	이순희 권사	한명문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본당청소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중식봉사					

## 주요광고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4층 VIP실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1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 진행 중 / 일시: 10월 4일(화) ~ 12월 25일(주일)까지.

좋은이웃교회 아가페 한 영혼 초청잔치: 12월 1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

〈전도수첩〉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VIP를 기록하고, 사랑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 학습 및 세례자 교육(5주) / 일시: 11월 20일(주일) 2부 예배 후 / 장소: 4층 VIP실

◎ 대학수학능력시험 / 일시: 11월 17일(목) /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대 청소 / 일시: 11월 19일(토) 오전 10시 / 마을별 담당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 일시: 11월 20일(주일) 오전 9, 11시 / 장소: 3층 본당

(365예물, 봉투 컨테스트, 과일바구니)

◎ 정책당회(예,결산 및 인사관련) / 일시: 일정과 장소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파워전도대 토요일전도 (2시 30분 /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장로회 / 다음 주: 2권사회)

■ 교우소식 ■백

◎ 치유 중보 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한정희 권사/

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장순희 집사/서승석 성도/백선거 집사

생명의 시작, 행복의 시작, 축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